

성 김대건 안드레아 사제와 성 정하상 바오로와 동료 순교자 대축일 (9월 20일)

시편 126(125), 1-2-3. 2-3. 4-5. 6(© 5)

손상오 신부 작곡

(후렴) 눈 물 로 씨 뿌 리 던 사 람 들 환 호 하 며 거 두 리 - 다

1. 주님이 시온을 귀양에서 풀어 주	실 때	우리는 마치	꿈꾸는 듯 하였	네
2. 그때 민족들이 말하	였 네	주님이 저들에게	큰일을 하셨구	나
3. 주님, 저희의 귀양	살 이	네겔땅 시냇물처럼	되돌리소	서
4. 뿌릴 씨 들고 울며가던 사	람 들			

D.S.

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넘	치 고	우리 혀에는	환성이 가득찬	네
주님이 우리에게 큰 일을 하셨	기 에	우리는	기뻐하였	네
눈물로 씨뿌리던 사	람 들	환호하며	거두리	라
		곡식단 안고 환호하며	돌아오리	라